

# 양·한방 협진 ‘장흥통합의료병원’ 반쪽 전략

### 병원장 공석·의료진 부족에 진료 차질...주거환경 등 인프라도 열악 “내원 환자 느는데 운영 부실한 이유는 의지 부족·군 감독 부실 때문”

보건복지부가 양·한방 협진 병원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장흥통합의료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통합의학 진료와 연구·교육 목적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과 ‘대구 전입병원’ 2곳을 양·한방 협진 진료병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안양면 사자산 자락 로하스타운 인근에 총 사업비 251억8000만원(국비 70%)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28실 1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12월 원광대학교 법인인 원광학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원광학원과 의 계약은 오는 2022년10월까지 5년 간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병원 운영비로 군비 7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원광학원의 운영 부실과 의지 부족, 장흥군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반쪽짜리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중순께 A 병원장이 사직해 공석인데다, 의료진마저 제대로 구하지 못해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장은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취임했는데

근무 1년 만에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며 지난달 중순께 사직하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병원장이 사직의 뜻을 여러차례 알렸지만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병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졌다.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이 개설한 6개 진료과목 중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재활과, 영상의학과 등 4개 과에만 전문의사가 배치됐고, 한방내과와 가정의학과는 전담의사가 없어 사실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병원 규모도 불태 간호사가 15명 이상은 돼야 하지만 현재 9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인력도 사무국장을 포함해 6명뿐이다.

이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도시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데다, 사택 등 주거환경도 열악해 의료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재활 중증환자들인데,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닥터헬기’가 없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양·한방 협진 진료병원으로 시범 지정할 취지를 살려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진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을



원광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의료진 부족 사태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의료 수익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병원의 지난해 입원 및 외래환자 수는 2만명으로 전년(1만4357)보다 39.3%인 5643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료수익도 20억1500만원을 기록, 전년도 9억1000만원 대비 120% 신장됐다.

장흥군은 로봇재활기구 등 최신형 재활기구를 갖춘 데다 양·한방 재활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이 주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흥군은 또 지난 2006년 ‘생약초한방특구’로 지정되고 2010년 통합의학박

람회,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로 성장하면서 장흥이 통합의학 대표 지역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백광철 장흥군수는 “환자 수가 늘고 의료수익도 개선되는데 병원 운영이 부실한 것은 운영기관의 의지 부족과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며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과 환자들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

### 화순군, 서거 12주기 전시회 다음달 2일까지 석봉미술관

화순군은 다음달 2일까지 군립 석봉미술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카이브 전시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민주·인권·평화를 통한 인류공생의 정신을 공유한다.

고인의 삶을 재조명한 전시는 ‘코리아 연대기-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1층 제1전시실에는 주요 역사적 순간을 회화로 재현한 서거 전담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와 조현수 작가의 작품이 설치됐다.

2층 제2전시실에서는 학산 광정우, 무림 김영기 등 서거가 18명이 붓으로 변주한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만날 수 있다.

2층 석봉전시실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석봉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화순군은 전시와 함께 김 전 대통령 정치 입문 67주년이자 대통령 출마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막 당일인 6일과 오는 20일 오후 3시 두차례 연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장성군의 역발상...이번엔? 청사 정문, 미디어아트 향연

### 황룡강 꽃단지 등 지역 명소 송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역발상 행정으로 주목받는 장성군이 이번에는 ‘미디어 파사드 조형물’로 탈바꿈한 청사 정문을 ‘골든게이트’로 이름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골든게이트’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딱딱하고 낡아 붙음없던 청사 정문에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결과 ‘도심속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미디어(media)’와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가 결합된 용어다.

과거에는 LED 패널을 벽에 부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장성군이 정문에 설치한 시스템은 이보다 한 발 진보한 벽면 자체에서 영상을 투사

한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화면으로 기능함으로써 ‘미디어 아트’처럼 도시경관 개선 효과까지 얻고 있다.

장성군은 정문 미디어 파사드에 ‘옐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사계절을 대표하는 봄·가을 ‘황룡강 꽃단지 풍경’을 비롯해 지역 명소를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 날씨,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조형물 내부에는 청사 관리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까지 높였다.

앞서 지난 1992년 준공된 장성군 청사 정문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진·출입로가 비좁아 소방차, 버스 등 대형차량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에 청사 정문 조형물 설치를 위한 준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선진지 답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근 새로운 정문을 준공했다.



장성군이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해 청사 정문을 공공미술작품으로 변신시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골든게이트로 명명된 정문은 길이 29m, 높이 7.7m, 최대 너비는 5.4m이다. 황룡강에 숨어 사는 황룡 ‘가온’의 전설에서 착안해,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표현했다.

예술성 뿐 아니라 안전성 향상을 고려한 확 트인 진·출입로도 이목을 끈다. 기존 8m이던 정문 폭을 12m까지 대폭 확대해 출입구 기능을 보완함으로

써 대형버스를 비롯해 차량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골든게이트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마음안심버스’ 운영

### 7월부터 주민 심리 지원

함평군은 주민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함평군은 지원받은 국비로 15인승 버스를 구입해 내외부를 개조하고 의료기기를 버스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마음건강주치의로 위촉된 정신과 전문의 등이 마음안심버스에 탑승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주기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대·군민 트라우마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한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안심버스 운영을 통한 강화된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마음이 건강한 함평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